선재동자 구도여행 시와 그림으로 엮은 해설서



입법계품지남도
불국선사 도찬
용학 스님 해설
맑은나라맑은소리 펴냄
2만8000원



문수보살 십신근본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국선사의 〈문수지남도찬(文殊指南圖讚)〉은 53선지식을 찾아 떠난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이 시와 그림으로 엮여있다. 〈문수지남도찬〉이 〈입법계품지남도(入法界品指南圖)〉 해설서로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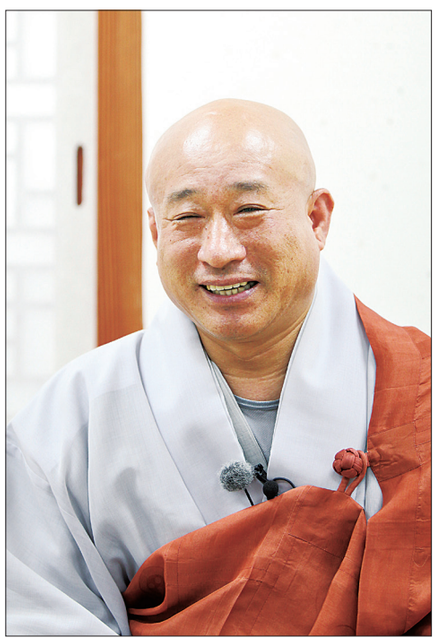
〈입법계품지남도〉해설서는 30여 년간 강원서 후학을 가르치며 전통경학을 연구한 강백 용학 스님이 해설한 책이다.

용학 스님은 해설서를 '역작'이라 불렀다. 이유는 시와 그림으로 명료하고 쉬울 뿐 아니라 선재동자가 만나는 선지식을 안내도처럼 표로 엮어 한자로 적어두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그림을 보며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경전 공부를 해 한자에 능숙한 강백 스님들이 봐도 도움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저자 용학 스님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근기에 따라 모습을 바꿔 나투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 같은 책"이라며 "화엄경은 다른 모든 경전과 연결되며 대승경전의 꽃이라 불리는 중요 경전이다. 글을 모르는 분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상중하 근기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림은 송나라 불국선사의 〈문수지남도찬〉 대장경 목판본 작품에 채색을 더했고, 시를 국문으로 번역했다. 채색은 정기란 불교 일러스트 작가가 담당했다.

〈문수지남도찬〉은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가신 길을 가르쳐 안내하는 그림이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신 길이란 환하고 밝게 자비와 지혜를 찾아가는 길을 상징한다. 선재동자는 구도의 길을 가는 모든 중생의 의지를 상징하며, 발보리심을 낸 수행자의 과정이며 목표이다. 책은 구도여행의 나침반 같이 수행자의 길잡이가 된다.



사진은 30여 년간 전통경학 연구한 강백 용학 스님.

불국선사 〈문수지남도찬〉 채색
중생 근기 아우르는 쉬운 안내
선재동자 53선지식 친견 한눈에

저자인 용학 스님은 "철마다 새로운 꽃이 피고, 해마다 새로운 잎이 돋는데, 종일토록 산마루를 밟고 가면서 어리석게도 그 산을 찾고 있는 삼계(三界)의 나그네. 마음은 결코 마음을 볼수 없지만(心不見心), 그래도 이제 내 주머니에는 나침반 하나 있다. 그것은 '지남도(指南圖)'"라고 밝혔다. 이번에 펴낸 〈입법계품지남도〉해설서는 방대한 〈화엄경〉에서 입법계품 근본법회와 후반 보현행원품까지 포함해 총 22권 분량을 요약했다. 책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눠 분류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수지남도〉에서 생략된 근본법회 여래회와 지말법회 보살회의 경문을 실었다. 두 번째는 지말법회 선재회이며 사라림에서 문수보살 법문을 듣고 발심한 선재동자가 남쪽으로 떠나 53선지식을 친견하는 내용이다.

용학 스님은 "선재동자가 덕운 비구, 해운 비구, 선주 비구 등 세 명의 비구를 먼저 친견하는 것은 삼보가 불교의 근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세 번에 걸친 보살법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신심을 일으키는 선재동자는 중생의 발보리심을 상징하고, 관자재보살 친견은 자비와 지혜를 갖춰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수행을 의미한다. 마지막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친견은 일체 법을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을 보여준다. 선재동자는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본래면목을 깨닫는다. 다시 만난 문수보살은 선재동자에게 마정수기를 주고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용학 스님은 "문수보살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깨달음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선재동자가 자신이 부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각지(覺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선재동자는 입법계품에서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선재동자는 바로 일심(一心)을 말한다. 선재동자가 초발심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담금질하는 모습은 치어(稚魚)가 먼 바다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모천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대견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40화엄경(40권본)〉 마지막에 있는 보현행원 중에 항순중생(恒順衆生)을 경문에 실어 자비를 실천하고 정각을 이룰 것을 당부하는 마음을 담았다. 용학 스님은 "항순중생이란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인생의 이상향은 보현행원에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용학 스님은 1986년 해인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다. 여천 무비 스님의 강맥을 이었으며 범어사 승가대학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출가 후 30년간 강원서 전통경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경남 양산 수암선원에 주석하며 유튜브 불교한문경전 전문채널 '용학스님tv 木魚(목어)', 네이버 밴드 '수암선원 화엄산림'을 운영 중이다.

"'나'를 실재하는 것으로 착각해 많은 고통 시작"



잠자는 붓다 깨우기
정봉무무스님 지음
어의운하 펴냄
1만3천원

정봉무무 스님의 첫 소참 법문집이 나왔다. 이 책은 지리산 홍서원을 방문한 불자들에게 스님이 들려준 소참 법문을 엮은 것이다. 열댓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에서 수많은 문답이 오가면서 정봉무무 스님은 붓다의 가르침을 단도직입으로 들려준다.

이미 불자들 사이에선 입에서 입으로 스님의 법문은 퍼져나간 상태였기에, 법문집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다. 스님의 법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나'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다. 스님은 많은 이들이 '나'를 실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에 많은 고통이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사성제의 핵심을 '집착을 끊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으로 본다. 집착이 어떤 것인지를 다양한 사례와 비유를 들어서 밝혀낸다.

예컨대 스님의 속가에서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지를 이야기한다. 담배를 끊으려고 해서 끊어진 것이 아닌, 자기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고 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다. 자기 본성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와 담배에 대한 집착이 도망가버리는 것이다. 한순간에 집착이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집착이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 스님의 법문은 이렇게 성품을 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봉무무 스님의 첫 소참 법문집
사성제의 핵심은 '집착을 끊는 것'
집착, 많은 사례와 비유들어 밝혀

스님의 법문을 읽으면서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점은 바로 '계'다.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점은 아주 당연하지만 불자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는 '삼귀의계'다. 오계에 앞서 스님은 '삼귀의계'를 아주 강조한다. '업'은 스님께서 자주 강조한 주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는데, 그것은 사실은 내가 지은 수많은 악업이 얽혀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하면 우선 그 비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생의 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지만, 또한 이번 생에 지혜롭게 사유하면 현생의 삶도 자유롭고 괴로움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지속하면 내 속에 있는 업이 보이면서 업이 붙을 자리가 사라짐을 경험한다고 전한다.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리를 통해 자신의 성품을 보라"는 것이다.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이다. 스님은 이근원통 수행이 무엇인지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부처님 말씀 중에 사람들 근기에 맞고 가장 수승한 방편의 가르침이 바로 이근원통 수행이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는 것을 좋아하고, 잣대를 세우고,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가장 공부하기 쉽고, 깨달음의 도를 이루기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아마도 초심자들에게, 또 불교지식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근원통 수행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스님은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외에도 정봉무무 스님은 불자들이 공부하면서 겪게 되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수행의 경계를 막힘 없이 들려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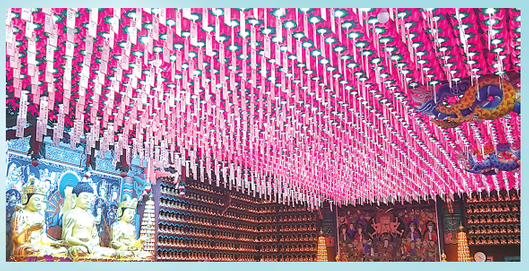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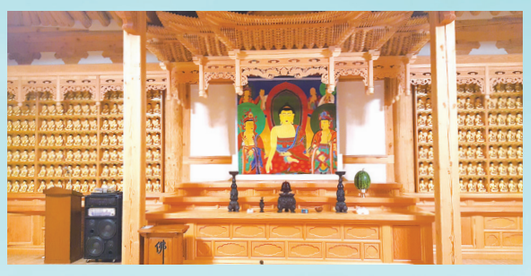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